

농민 직업병 예방 및 진료활동 강화

관리번호	4-6		
사업명	농민 직업병 예방 및 진료활동 강화	추진현황	진도
		완료(계속)	100%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진료민원팀	담당자	최영경(☎ 639-6476)

■ 사업개요

- 기간 : 2017. 5. 8. ~ 11. 2.
- 대상 : 오지마을10개소
(풍기, 이산, 평은, 문수, 장수, 봉현, 순흥, 단산, 부석2)
- 추진내용 : 한방진료, 건강검사, 구강검사 등
- 인력 : 5명(한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 추진상황(실적)

- 농번기 야간 한방 순회진료
 - 2017년 36회(한방진료 891명, 건강검사 523명, 구강검사 240명)
 - 2016년 39회(한방진료 733명, 건강검사 420명, 구강검사 240명)
 - 2015년 20회(한방진료 523명, 건강검사 544명)
 - 2014년 9회(한방진료 317명, 건강검사 203명)
- 오지마을 순회진료
 - 2015년 2회(환자진료 60명)
 - 2014년 7회(환자진료 246명)
- 세라밴드 운동 및 실버체조
 - 2016년 139회 4,110명
 - 2015년 134회 4,210명
 - 2014년 87회 3,733명

■ 향후 추진계획

- 농촌마을 효 사랑 야간한방 순회진료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다가가는 섬김 행정 실천

■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물



<한방진료>



<건강검사>



<구강검사>

日刊경북신문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016면 사람들 15.9 x 14.2cm

영주시, '침 한방에 농사피로 썩~~~'

농촌 지역에 한방진료, 건강검사, 틀니세척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알고 있다. 야간 한방 순회진료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한의사, 간호사, 구강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진료반이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을 방문해 한방진료, 건강검사, 틀니세척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순회진료 대상은 문수면 승문2리 마을회관 외 9개 지역으로, 대상신청은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읍·면의 10개소 오지 마을을 선정했다.

영주시보건소에서 출발한 야간 한방 순회진료단이 풍기를 창락과 위장장에, 활안, 당노 등을 호소했다. 영주시보건소가 농번기 농촌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시작한 '효사랑 야간 한방 순회 진료' 사업이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시는 개개인의 증상, 혈압, 당노 등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방진료 및 개인별 맞춤 보건교육 등 한 달 간 집중 관리해 농번기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오지마을 농민들의 건강관리에 한 몫을 푹 푹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흥국기자

<지역신문에 게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김인석	☎ 639-6472
		진료민원팀장	우효순	☎ 639-6448
		주무관	최영경	☎ 639-6476
		주무관	박나래	☎ 639-6478